

# 석유 · 화학, 설비투자 급증추세

S-Oil 제2 중질유분해 3조5740억원 투자 ... 삼성SDI도 7312억원

2006년 시설투자에 나서는 상장 화학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6월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새로 시설투자를 하거나 시설 증설을 하겠다고 공시한 국내기업 및 건수는 41사, 50건으로 2005년 1월부터 6월16일의 31사, 39건에 비해 각각 32.26%, 28.21% 늘어났다.

또 금액 기준으로는 13조1488억원으로 2005년 8조1711억원에 비해 무려 60.92% 증가했다.

1사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5년 2636억원보다 21.67% 증가한 3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상장기업 시설투자는 2005년 전년대비 12% 가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별 시설투자 내역을 보면 S-Oil이 제2 중질유 분해시설을 건설하는데 3조57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메모리연구 개발라인 등 7건의 시설투자에 3조1852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하이닉스 9346억원, 한국가스공사 8554억원, 삼성SDI 7312억원, SK텔레콤 5929억원 등의 시설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0>